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22호 / 9월 22일

중국 민간 저축예금 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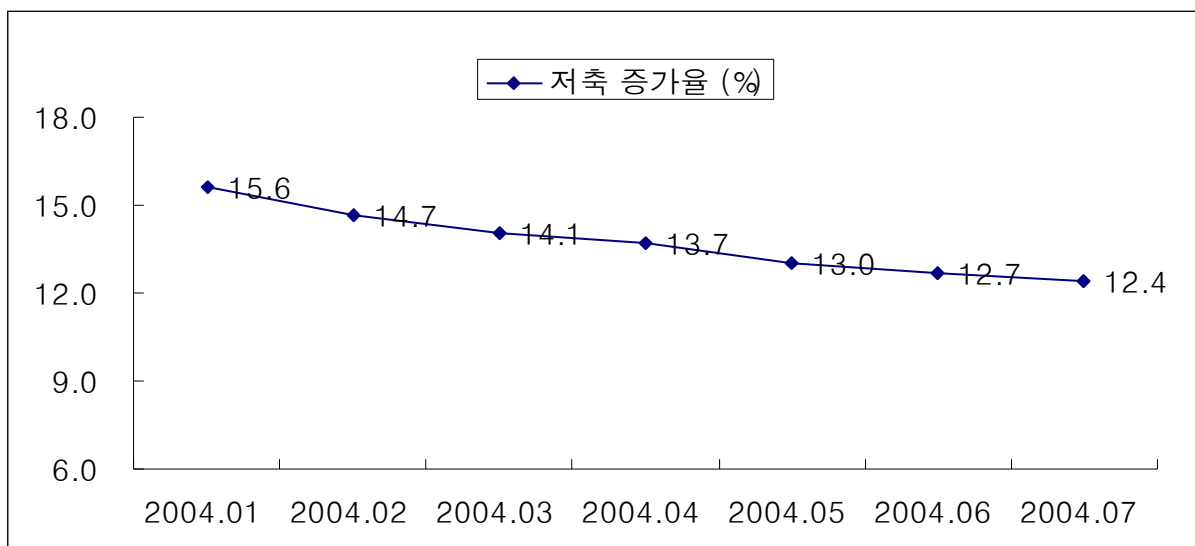
- 중국인들의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간 저축예금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.ⁱ
 -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민간 저축예금총액 증가분은 지난해 동기 증가분에 비해 1,309억 위안이 감소하였고 저축예금 증가율도 올해 들어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4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.
 - 반면 금년 상반기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.9% 증가하여, 물가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질 소득증가율 (8.7%)은 지난해에 비해 0.3% 상승
- 이에 따라 향후 높은 은행저축예금과 이를 통한 은행대출이 기업의 재원조달의 주요 통로였던 종전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됨.

2. 저축예금 증가율 둔화의 원인

□ 중국의 민간 저축예금 증가율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
- 1월 저축예금 증가율은 15.6%였는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7월 저축예금 증가율은 12.4%로 둔화되었음. <표 1 참조>

<표. 1> 중국 민간 저축예금 증가율



자료: 중국인민은행

- 7월까지의 민간 저축예금의 총액은 12조 1,093억 위안으로 작년 말 11조 695억 위안에 비해 1조 398억 위안이 증가하였는데, 이는 작년동기 증가분에 비해 1,309억 위안 감소한 것임.

□ 민간 저축예금 증가율 둔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.

□ 첫째, 負의 실질금리로 인한 은행 저축예금에 대한 선호도 하락

-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본격적인 “마이너스 금리”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 저축예금 대신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거나 소비를 확대하는 경향 증가
 -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실질금리는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음.
 - 금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.3% 증가한 반면,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1.98%, 稅後금리는 1.58%로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-3.72%

□ 둘째, 종전에는 저축예금 이외의 투자상품이 없었던 반면, 최근에는 비교적 다양한 투자상품이 공급되면서 이들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음.

- 금년 1/4분기에 발행된 각종 신규 펀드의 규모는 850억 위안으로 작년 일년 동안의 발행규모를 이미 초과
- 금년 상반기에 주식, 펀드, 국채, 기업채, 보험에 투자된 금액은 4,820억 위안으로 작년동기대비 2,626억 위안 증가

□ 셋째, 소득증가분을 상회하는 소비지출의 증가도 저축예금 감소의 중요 요인

- 금년 7월까지 小賣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12.8% 증가하였고, 물가상승을 고

려하더라도 상승폭은 작년에 비해 4.5% 포인트가 높음. 이에 따라 민간소비 지출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.

□ 넷째,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한 투자성 지출이 확대되고 있음.

- 올 7월까지 개인 주택대출 총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28.6%가 증가하였음.

□ 다섯째,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민영기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.

- 최근의 긴축정책으로 자금회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3. 중소기업 은행의 경영곤란 가중과 公款私存의 은행권 탈출 추정

□ 중국 상업은행의 주요 재원조달 통로는 예금수신이며, 이외에 중앙은행의 재대출, 은행간시장 등이 있으나 예금수신 증가둔화에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함.

- 중국 상업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예대금리차에 의한 수입이 약 80%를 차지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특히 중개업무가 활발하지 않은 중소기업 상업은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 호북, 강서, 사천 등지의 일부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- 일부 관찰자들은 금년 들어 중국의 은행저축예금의 증가세 둔화현상이 고정자산투자액 증가세의 둔화현상에 비하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, 긴축정책하에서 종전에는 공관사존(公款私存)의 형태로 은행권에 유입될 저축예금이 직접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- 공관사존이란 국유기업 또는 집체기업의 자금(公款)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개인명의로 저축예금(私存)으로 은행권에 유입되는 현상으로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실제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
4. 거시 긴축정책과 사채시장의 호황

- 최근 중국의 은행부문은 민간 저축예금의 외부유출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
 - 이것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저축예금 증가 때문에 자금의 분산을 위해서 예금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현상임.
- 특히 유출되는 민간 저축예금 중 대량의 자금이 민간 사채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까지 발생
 - 민영기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원조우(温州) 지역의 경우 올 5월까지 은행에서 10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되었고, 이 대부분이 민간 사채시장

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- 원조우 지역에는 현재 민간 자금이 2,6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는데 은행에 예금된 1,800억 위안 이외에 800억 위안이 민간 사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□ 최근의 거시 긴축정책으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채시장의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자금을 확보하려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음.

- 원조우 지역의 사채금리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국가규정 금리의 2~3배에 달하고 있는데, 작년에 연리로 9.6%였던 대출금리가 금년 5월에는 11.5%로 상승하였음.

□ 정부는 사채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임.

- 원조우 지역의 泰顺현의 경우 三魁利民이라는 사채기업이 전면적인 조사를 받고 8명의 주주가 구속되었는데, 이들은 1,500여 명에게서 1,800여 만 위안을 확보하였음.

5. 시사점

□ 최근의 저축 증가율 둔화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

상인 측면이 강하지만, 향후 대체 금융상품의 증가와 내수소비 확대라는 구조적인 변화로 저축 증가율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- 중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거나, 물가상승률이 진정될 경우 저축 증가율 둔화 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임.
- 그러나 대체 금융상품의 확대와 중국 정부의 내수소비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축 증가율 둔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.

□ 이에 따라 이런 추세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체질 변화,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체질 변화가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. (***)

ⁱ 居民儲蓄增幅下滑 可能抵达近10年高增长拐点 (《北京青年報》 9.6), 居民儲蓄增长连续4月回落 (《國際金融報》 9.1) 温州高利贷吞数百亿存款 民企“钱荒”惊中央 (《民營經濟報》 9.7) 前7个月我国居民儲蓄存款同比减少1309亿元 (《中國證券網》 8.31), 銀行儲蓄連續六月下降 千亿儲蓄分流追踪 《21世紀經濟報道》 8.23) 등 참조